

2026
02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시는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말씀 순종입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처음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나머지 6계명이 인간끼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십계명을 밭 먹듯이 여기고 삽니다.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고, 간음하고 서로 거짓말하며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 만나면 모두 다 의심의 눈으로 보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 피싱 아닐까 의심합니다. 율리히 백이 말한 것처럼 문명이 발달할수록 ‘위험사회’가 돼가는 것은, 결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없이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런 교회는 가든파이브같이 우리가 원히 노출된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가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들어 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무엇이건 즉시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전제도 없이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 순종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이미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부터 순종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심플하고 기본적인 말씀들부터 결심하고 순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은 엄청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모두가 그 포도주를 마시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쁨은 물 떠온 하인들이 누린 것이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을 누렸습니다. 순종하면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구할 것, 즉,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된 우리가 그렇게 복 받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다.

기도의 마침표는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축복은 순종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서졌던 과거의 조각들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오늘부터 하나님은 다시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미래는 순종하는 오늘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2026
02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2026.
02

SAEROUN

주일	월	화	수
1	2	3	4
8	9	10	11
15	16	17 설날	18
2/16-19 일본 비전 트립			
22	23	24	25
1 삼일절	2	3	4

QT

목	금	토
5	6	7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S하우스)
	2/6-8 고등부 겨울 수련회 (도고 교원연수원)	
12	13	14
19	20	21
		1 JAN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6	27	28
		남성사역 모닝글로리
	2/27-3/1 Jr.초등부 겨울 수련회 (도고 교원연수원)	
5	6	7
		3 M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6.
02

1	주일	다윗 vs 압살롬	삼하 14:25-26&15:1-6&18:17-18
2	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삼상 16:1-13
3	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신 22:13-22
4	수	거룩은 일상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신 23:9-14
5	목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신 23:15-20
6	금	서원한 것을 지키라	신 23:21-25
7	토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	신 24:1-5
8	주일	아도니아 vs 솔로몬	왕상 1:5-10, 22-31
9	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왕상 3:5-15
10	화	가난한 자의 생명을 존중하라	신 24:6-16
11	수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 24:17-22
12	목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신 25:5-10
13	금	공정한 저울추	신 25:13-16
14	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신 25:17-19
15	주일	여호수아 vs 갈렙	수 1:1-6 & 14:10-14
16	월	[설연휴] 끝까지 따르는 믿음	민 14:20-24
17	화	[설날]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	롬 12:9-18
18	수	[설연휴] 여호와를 인정하는 길	잠 3:1-12
19	목	여호와 앞에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라	신 26:1-11
20	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 26:12-19
21	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신 27:1-10
22	주일	베드로 vs 바울	갈 2:7-20
23	월	믿음으로 사는 삶	롬 3:19-31
24	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신 27:11-26
25	수	순종이 여는 복된 삶의 자리	신 28:1-6
26	목	여호와께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신 28:7-14
27	금	불순종이 불러오는 삶의 붕괴	신 28:15-24
28	토	사랑으로 충만한 삶	엡 3:17-19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윗 vs 압살롬

삼하 14:25-26 & 15:1-6 & 18:17-18

[삼하 14:25-26]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In all Israel there was not a man so highly praised for his handsome appearance as Absalom. From the top of his head to the sole of his foot there was no blemish in him.

26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 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Whenever he cut the hair of his head—he used to cut his hair once a year because it became too heavy for him—he would weigh it, and its weight was two hundred shekels by the royal standard.

[삼하 15:1-6]

1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In the course of time, Absalom provided himself with a chariot and horses and with fifty men to run ahead of him.

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He would get up early and stand by the side of the road leading to the city gate. Whenever anyone came with a complaint to be placed before the king for a decision, Absalom would call out to him, "What town are you from?" He would answer, "Your servant is from one of the tribes of Israel."

3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Then Absalom would say to him, "Look, your claims are valid and proper, but there is no representative of the king to hear you."

4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And Absalom would add, "If only I were appointed judge in the land! Then everyone who has a complaint or case could come to me and I would see that they receive justice."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Also, whenever anyone approached him to bow down before him, Absalom would reach out his hand, take hold of him and kiss him.

6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Absalom behaved in this way toward all the Israelites who came to the king asking for justice, and so he stole the hearts of the people of Israel.

[삼하 18:17-18]

17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They took Absalom, threw him into a big pit in the forest and piled up a large heap of rocks over him. Meanwhile, all the Israelites fled to their homes.

18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During his lifetime Absalom had taken a pillar and erected it in the King's Valley as a monument to himself, for he thought, "I have no son to carry on the memory of my name." He named the pillar after himself, and it is called Absalom's Monument to this day.

.....

04

수요일

거룩은 일상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신 23:9-14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14 "전심으로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

9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When you are encamped against your enemies, keep away from everything impure.

10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나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If one of your men is unclean because of a nocturnal emission, he is to go outside the camp and stay there.

11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But as evening approaches he is to wash himself, and at sunset he may return to the camp.

12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Designate a place outside the camp where you can go to relieve yourself.

13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As part of your equipment have something to dig with, and when you relieve yourself, dig a hole and cover up your excrement.

14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For the LORD your God moves about in your camp to protect you and to deliver your enemies to you. Your camp must be holy, so that he will not see among you anything indecent and turn away from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서원한 것을 지키라

신 23:21-25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16 "버리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삼상 12:22,24)

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If you make a vow to the LORD your God, do not be slow to pay it, for the LORD your God will certainly demand it of you and you will be guilty of sin.

22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But if you refrain from making a vow, you will not be guilty.

23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Whatever your lips utter you must be sure to do, because you made your vow freely to the LORD your God with your own mouth.

24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If you enter your neighbor's vineyard, you may eat all the grapes you want, but do not put any in your basket.

25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If you enter your neighbor's grainfield, you may pick kernels with your hands, but you must not put a sickle to their standing grai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

신 24:1-5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If a man marries a woman who becomes displeasing to him because he finds something indecent about her, and he writes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gives it to her and sends her from his house,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and if after she leaves his house she becomes the wife of another man,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and her second husband dislikes her and writes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gives it to her and sends her from his house, or if he dies,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then her first husband, who divorced her, is not allowed to marry her again after she has been defiled. That would be detestable in the eyes of the LORD. Do not bring sin upo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If a man has recently married, he must not be sent to war or have any other duty laid on him. For one year he is to be free to stay at home and bring happiness to the wife he has marri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아도니아 vs 솔로몬

왕상 1:5-10, 22-31

- 5 그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

Now Adonijah, whose mother was Haggith, put himself forward and said, "I will be king." So he got chariots and horses ready, with fifty men to run ahead of him.

- 6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His father had never rebuked him by asking, "Why do you behave as you do?" He was also very handsome and was born next after Absalom.)

- 7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Adonijah conferred with Joab son of Zeruiah and with Abiathar the priest, and they gave him their support.

- 8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But Zadok the priest, Benaiah son of Jehoiada, Nathan the prophet, Shimei and Rei and David's special guard did not join Adonijah.

- 9 아도니아가 에스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Adonijah then sacrificed sheep, cattle and fattened calves at the Stone of Zoheleth near En Rogel. He invited all his brothers, the king's sons, and all the royal officials of Judah,

- 10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but he did not invite Nathan the prophet or Benaiah or the special guard or his brother Solomon.

- 22 밋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 지라

While she was still speaking with the king, Nathan the prophet arrived.

- 23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And the king was told, "Nathan the prophet is here." So he went before the king and bowe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 24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Nathan said, "Have you, my lord the king, declared that Adonijah shall be king after you, and that he will sit on your throne?"

- 25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Today he has gone down and sacrificed great numbers of cattle, fattened calves, and sheep. He has invited all the king's sons, the commanders of the army and Abiathar the priest. Right now they are eating and drinking with him and saying, 'Long live King Adonijah!'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 24:17-22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18 "먼저 드리는 삶의 축복"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9-10)

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Do not deprive the foreigner or the fatherless of justice, or take the cloak of the widow as a pledge.

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the LORD your God redeemed you from there. That is why I command you to do this.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When you are harvesting in your field and you overlook a sheaf, do not go back to get it. Leave it for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When you beat the olives from your trees, do not go over the branches a second time. Leave what remains for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When you harvest the grapes in your vineyard, do not go over the vines again. Leave what remains for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That is why I command you to do thi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신 25:5-10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19 "말길 때 이루시는 하나님"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 37:5-6)

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If brothers are living together and one of them dies without a son, his widow must not marry outside the family. Her husband's brother shall take her and marry her and fulfill the duty of a brother-in-law to her.

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The first son she bears shall carry on the name of the dead brother so that his name will not be blotted out from Israel.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However, if a man does not want to marry his brother's wife, she shall go to the elders at the town gate and say, "My husband's brother refuses to carry on his brother's name in Israel. He will not fulfill the duty of a brother-in-law to me."

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Then the elders of his town shall summon him and talk to him. If he persists in saying, "I do not want to marry her,"

9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his brother's widow shall go up to him in the presence of the elders, take off one of his sandals, spit in his face and say, "This is what is done to the man who will not build up his brother's family line."

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That man's line shall be known in Israel as The Family of the Unsandal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공정한 저울추

신 25:13-16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20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13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Do not have two differing weights in your bag—one heavy, one light.

14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Do not have two differing measures in your house—one large, one small.

15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You must have accurate and honest weights and measures,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16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For the LORD your God detests anyone who does these things, anyone who deals dishonestl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신 25:17-19

17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Remember what the Amalekites did to you along the way when you came out of Egypt.

18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When you were weary and worn out, they met you on your journey and attacked all who were lagging behind; they had no fear of God.

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When the LORD your God gives you rest from all the enemies around you in the land he is giving you to possess as an inheritance, you shall blot out the name of Amalek from under heaven. Do not forge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여호수아 vs 갈렙

수 1:1-6 & 14:10-14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LORD said to Joshua son of Nun, Moses' aide: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n,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 am about to give to them—to the Israelites.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Lebanon, and from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all the Hittite country—to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west.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ancestors to give them.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Now then, just as the LORD promised, he has kept me alive for forty-five years since the time he said this to Moses, while Israel moved about in the wilderness. So here I am today, eighty-five years old!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the day Moses sent me out; I'm just as vigorous to go out to battle now as I was then.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You yourself heard then that the Anakites were there and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Then Joshua blessed Caleb son of Jephunneh and gave him Hebron as his inheritance.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음이라

So Hebron has belonged to Caleb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ever since,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

롬 12:9-18

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Love must be sincere. Hate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faithful in prayer.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Share with the Lord's people who are in need. Practice
hospitality.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bless and do not curse.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
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one.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
목하라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 26:12-19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22 "사랑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12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 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When you have finished setting aside a tenth of all your produce in the third year, the year of the tithe, you shall give it to the Levite,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so that they may eat in your towns and be satisfied.

13 그리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Then say to the LORD your God: "I have removed from my house the sacred portion and have given it to the Levite,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according to all you commanded. I have not turned aside from your commands nor have I forgotten any of them.

14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 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I have not eaten any of the sacred portion while I was in mourning, nor have I removed any of it while I was unclean, nor have I offered any of it to the dead. I have obeyed the LORD my God; I have done everything you commanded me.

15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 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Look down from heaven, your holy dwelling place, and bless your people Israel and the land you have given us as you promised on oath to our ancestor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16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 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The LORD your God commands you this day to follow these decrees and laws; carefully observe the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17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You have declared this day that the LORD is your God and that you will walk in obedience to him, that you will keep his decrees, commands and laws—that you will listen to him.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And the LORD has declared this day that you are his people, his treasured possession as he promised, and that you are to keep all his commands.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He has declared that he will set you in praise, fame and honor high above all the nations he has made and that you will b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as he promis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신 27:1-10

1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Moses and the elders of Israel commanded the people: "Keep all these commands that I give you today.

2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When you have crossed the Jordan into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set up some large stones and coat them with plaster.

3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Write on them all the words of this law when you have crossed over to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just as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promised you.

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And when you have crossed the Jordan, set up these stones on Mount Ebal, as I command you today, and coat them with plaster.

5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Build there an altar to the LORD your God, an altar of stones. Do not use any iron tool on them.

6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Build the altar of the LORD your God with fieldstones and offer burnt offerings on it to the LORD your God.

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Sacrifice fellowship offerings there, eating them and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And you shall write very clearly all the words of this law on these stones you have set up."

9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Then Moses and the Levitical priests said to all Israel, "Be silent, Israel, and listen! You have now become the people of the LORD your God.

10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Obey the LORD your God and follow his commands and decrees that I give you toda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베드로 vs 바울

갈 2:7-20

- 7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On the contrary, they recognized that I had been entrusted with the task of preaching the gospel to the uncircumcised, just as Peter had been to the circumcised.

-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For God, who was at work in Peter as an apostle to the circumcised, was also at work in me as an apostle to the Gentiles.

- 9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James, Cephas and John, those esteemed as pillars, gave me and Barnabas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when they recognized the grace given to me. They agreed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and they to the circumcised.

-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All they asked was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the very thing I had been eager to do all along.

-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When Cephas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stood condemned.

-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arrived, he began to draw back and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because he was afraid of those who belonged to the circumcision group.

-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The other Jews joined him in his hypocrisy, so that by their hypocrisy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When I saw that they were not acting in line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Cephas in front of them all, "You are a Jew, yet you live like a Gentile and not like a Jew. How is it, then, that you force Gentiles to follow Jewish customs?"

-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We who are Jews by birth and not sinful Gentiles

순종이 여는 복된 삶의 자리

신 28:1-6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24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

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
실 것이라

If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
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on you and accompany you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4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
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The fruit of your womb will be blessed, and the crops of
your land and the young of your livestock—the calves of
your herds and the lambs of your flocks.

5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Your basket and your kneading trough will be blessed.

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니라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여호와께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신 28:7-14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25 "넘치게 준비하시는 은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5)

7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The LORD will grant that the enemies who rise up against you will be defeated before you. They will come at you from one direction but flee from you in seven.

8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The LORD will send a blessing on your barns and o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to.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the land he is giving you.

9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The LORD will establish you as his holy people, as he promised you on oath, if you keep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and walk in obedience to him.

10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Then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see that you are called by the name of the LORD, and they will fear you.

11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이 하시며

The LORD will grant you abundant prosperity—in the fruit of your womb, the young of your livestock and the crops of your ground—in the land he swore to your ancestors to give you.

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The LORD will open the heavens, the storehouse of his bounty, to send rain on your land in season and to bless all the work of your hands. You will lend to many nations but will borrow from none.

13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The LORD will make you the head, not the tail. If you pay attention to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give you this day and carefully follow them, you will always be at the top, never at the bottom.

14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Do not turn aside from any of the commands I give you today, to the right or to the left,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불순종이 불러오는 삶의 붕괴

신 28:15-24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26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2-3)

* 내일(2/28) 기도회는 새벽예배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However, if you do not obey the LORD your God and do not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and decrees I am giving you today, all these curses will come on you and overtake you:

16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You will be cursed in the city and cursed in the country.

17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Your basket and your kneading trough will be cursed.

18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The fruit of your womb will be cursed, and the crops of your land, and the calves of your herds and the lambs of your flocks.

19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You will be cursed when you come in and cursed when you go out.

20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The LORD will send on you curses, confusion and rebuke i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to, until you are destroyed and come to sudden ruin because of the evil you have done in forsaking him.

21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The LORD will plague you with diseases until he has destroyed you from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22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The LORD will strike you with wasting disease, with fever and inflammation, with scorching heat and drought, with blight and mildew, which will plague you until you perish.

23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The sky over your head will be bronze, the ground beneath you iron.

24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The LORD will turn the rain of your country into dust and powder; it will come down from the skies until you are destroy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SAEROUN QT

28

토요일

사랑으로 충만한 삶

엡 3:17-19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And I pray that you,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Lord's holy people,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2026.
02

CES 간증

01

1. 김연주E 성도 (C강남공동체)
2. 김현영 집사 (E강남공동체)
3. 김종구 성도 (W강남공동체)
4. 오철승 장로 (S강남공동체)
5. 함다혜 청년 (청년1부)
6. 정진향 성도 (C강남공동체)
7. 황혜재 성도 (S서초공동체)
8. 조은영 목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CES

김연주E 성도 (C강남공동체)



저는 마더와이즈 조장님을 통해 CES 과정이 은혜롭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CES 과정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성경속으로' 과정을 마친 후, CES 멘티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고 잠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님과 일대일로 만나 성경공부도 하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싶다는 작은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속마음을 터놓고 일대일로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분들은 없었기에 이 과정이 어찌면 관계에 목마른 제게 샘물 같은 기대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멘토님이셨습니다. 몇 분간 통화를 했는데 밝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자매님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멘토님을 만나 CES를 공부하며 보내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CES 과정 속에서 멘토님이 알려주신 기독교적 내용도 참 좋았지만,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질문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를 직접 준비해 주신 멘토님 덕분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멘토님께서서는 제게 “멘토가 되면 멘티 때보다 더 은혜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멘토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멘티만 하고 싶어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과정이 끝나갈 즈음, ‘나도 멘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멘토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했기에, 저처럼 멘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그 결에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매번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CES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입니다

김현영 집사 (E강남공동체)



멘토로 여러 차례 섬겨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멘티님을 만나게 될 때마다 기대되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멘티님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선택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통화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 이틀을 보내고서야 전화를 드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멘토로 섬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 아무 자격 없이 과분하게 받았다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CES를 통해 매번 새롭게 부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나 좋자고 하는 겁니다.

이번 CES 역시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였습니다. CES 나눔을 통해 멘티님은 하나님께서 멘

티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냈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티님은 피하고 싶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섬겨보겠다고 결단했고, 하나님께서는 멘티님을 통해 그 상황과 그 주변 사람들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멘토의 자리에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저를 자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CES를 통해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김종구 성도 (W강남공동체)



김종구 성도 저에게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18년의 광야와도 같았던 외로운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의 신실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동생이 섬기던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떠나 이곳 새로운교회에 등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양육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순을 배정받아 순예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왕초보 성경공부 과정인 ‘SBSB’, 결혼을 앞두고거나 결혼한 지 1년 미만의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결혼교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배우는 ‘대화스쿨’,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세워주는 ‘CES’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육 과정을 틈틈이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25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신앙의 깊이가 얕은, 부끄러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 양육과정을 통해 ‘기독교 기초 교리’를 배우고,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이 교육을 신청하

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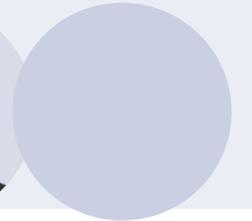
첫 시간에 ‘원죄’를 배우며 제가 죄인 중의 죄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두 번째 시간인 ‘구원’을 마친 다음 날에는 새벽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던 중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공부해 가는 과정 속에서 멘토님과 의 어색했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끈끈해졌습니다. 특히 멘토님께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훈련을 이겨내신 간증과 선교 및 사역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의 신앙 여정에서 경험하신 은혜의 고백은 때로는 웃음과 눈물을, 때로는 깊은 경건함으로 제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기도와 말씀 묵상’, ‘영적 전쟁’, ‘종말론’, ‘사명’의 과정을 마치며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죄를 값없이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무익한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이제 제가 응답해야 할 길은 말씀에

영원한 멘토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오철승 장로 (S강남공동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게 주어진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CES를 신청하며 막연히 ‘기독교 기초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가, 이제 CES를 마친 이 시점에서 한층 더 성장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며,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철승 장로 새로운교회에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 과정마다 많은 은혜가 흘러넘치지만 성도가 일대일로 만나 잘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삶의 스토리까지 나누며 한 사람을 위한 깊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CES 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교회의 훌륭한 멘토들 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 멘토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멘티를 만나 CES를 함께 나눌 때면 85%의 부담감 13%의 기대감 그리고 2%의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너무나 잘 만들어진 CES 교재와 우리의 진정한 멘토 되신 주님의 긍휼로 CES를 은혜롭게 잘

나누고 있습니다.

멘티와의 만남이 언제나 주님의 섭리이듯이 이번 멘티님과 만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CES 나들이였습니다.

멘티님은 저와의 만남에 서먹서먹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CES와 멘토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부담감이 98%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12강을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멘토와 멘티의 관계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신 주님께 함께 배우는 자로 만들어 가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CES 만남도 저는 주님이 사용하는 멘토라는 도구일 뿐이고 이 귀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통로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멘티님과 오늘 수료하신 모든 멘티님들은 우리 멘토들과 함께 복음의 항공모함인 새로운교회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하며 복음이 필요한 곳 영적 전쟁이 치열한 장소라면 어디든지 날아가 CES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폭탄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다혜 청년 (청년1부)



함다혜 청년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이른바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왔습니다. 때문에 삶의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인지에 대한 의문과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K-장녀로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오가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적·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청소년기에 신앙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우울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생긴 실망과 분노는 교회와 신앙 전반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결국 저는 “다시는 한국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대학 진학과 함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채 대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멀리했지만, 그 삶이 결코 온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코로나 시기에는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시간 속에서 공허함은 더 깊어졌고, 결국 놀러왔던 원망과 울분이 하나님께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 마음 편히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울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쏟아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 한 홍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고, 말씀을 찾아 들으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4년 전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새로운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교회 안에서 그동안 상처로 닫혀 있던 마음의 영역들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공동체에 대해 기대하지 않으려 했던 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처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청년부 순장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CES 양육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긍정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솔직히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며 크리스천 학교까지 다닌 배경으로 인해 기초 교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안에 작은 교만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멘토님과과의 첫 만남은 여러 일정과 건강 문제로 반복해서 미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CES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크겠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멘토님과 1:1 나눔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다시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던 제 삶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새로운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CES 과정을 마치며, 이 양육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토대임

과부의 두 렷돈처럼,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정진향 성도 (C강남공동체)



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멘토로서 세워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경험한 이 회복과 은혜를 다음 사람에게 성실히 흘러보내는 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그 보호하심에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진향 성도 저에게 ‘멘토가 된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결국 제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저를 통로 삼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붙들고자 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으며 멘티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신기하게도, 제가 그동안 만났던 멘티들은 모두 선교사님의 따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리지만 참 깊고 아름다운 신앙을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쉽지 않은 선교지의 삶과 부모님의 희생, 어린 시절 감당하기 어려웠을 삶의 무게를 지나오며 요즘 보기 드문 성숙함을 품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멘티 또한 곱고 예쁘고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으로 귀한 자매였습니다. 동생처럼, 때로는 딸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멘티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해 한 과, 한 과 나누어 가는 과정은 제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

아오던 제 신앙에 감사와 감격, 깨우침과 깨달음을 더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멘티를 통해 제 청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인생의 지나온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멘토-멘티의 과정을 지나오며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다시 멘토로 섬기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시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 가운데 제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제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과부의 두 렷돈처럼 기꺼이 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라고 불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황혜재 성도 (S서초공동체)



황혜재 성도 오랜 성가대 솔리스트 생활로 1:1 양육을 받아본 적 없는 저에게 CES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양육은 받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1:5 정도면 딱 좋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고 또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목사님들과 함께한 일본 성지순례에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으로 CE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ES 책을 구입하고 전체 흐름을 살펴보며 ‘이건 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생각한 채 1과를 예습하던 중, 이유 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 중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고, 내게 속한 것들을 쉽게 미워하고 싫어해 왔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그것이 곧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소유물인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새삼 감동되고 감사히 진지하게, 합당하게 쓰고 돌려 드리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 챕터가 지나갈수록 회개가 깊어지고 생각이 정리되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은 더 명확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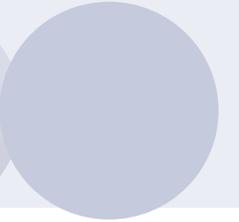
그렇게 CES는 시작되었고, 제가 사복음서의 뒷부분을 읽기 꺼려하고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억울한 죽음으로만 여기며, 그 장면을 건너뛰고 빨리 부활로 넘어가고 싶어 했다는 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CES를 통하여 고난을 외면할수록 오히려 부활의 감격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으며, 참된 부활의 의미와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0과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천국 소망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고백한 순간,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잠드신 채로... 그 래서인지 그 죽음이 마냥 슬프기보다 고통 없이 돌아가셨고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 기대감에 감사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해결하

멘토를 성장시키는 멘티

조은영 목사



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CES는 제가 뭔가를 더 잘해야 상주시는 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이미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셨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있는 지휘자의 자리에서 CES를 통해 정리된 마음을 흘려보내고 더욱더 삶의 예배자로서 찬양할 수 있도록 대원들을 멘토링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은영 목사 멘티님은 교회 양육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새로운교회에 와서 다른 지휘자님들을 보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지휘자님들이 아니라, 교회 집사님, 교회 성도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교회의 성도로서 양육을 받고 싶은 마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CES. 멘티님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기다렸던 만큼 처음부터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습니다. 말씀구절도 다 외우고 미리 말씀구절을 적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예습을 하며 나눌 내용들을 미리 생각해 오는 아주 모범생 멘티였습니다.

이미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있었음에도 겸손하게 모든 내용들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멘티를 만날 때 멘토는 굉장히 겸손해지고 기도로 모임을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멘티님과 CES를 통해 저 또한 성장하고 멘티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좋은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멘티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CES의 또 다른 매력인데 멘티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멘티님은 무대에서 볼 때 화려하고 카리스마로 모든 걸 휘어잡는 스타일로 보이지만 제가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여성스럽고 순종적이고 세심하며 소녀처럼 순수하고 완전 극 내향적인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멘티님, 멘티님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모든 걸 자유롭고 즐겁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2026.
02

뉴젠 YEM 수련회 간증

02

1. Ashley Bin 빈예하 학생 (뉴젠 YEM)
2. 윤지아 학생 (뉴젠 YEM)
3. Seine Kim 김세인C 학생 (뉴젠 YEM)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자

Ashley Bin 빈예하 학생 (뉴젠 YEM)



On this year's winter retreat, I have learnt many things. We first learnt about the slavery mindset Israelites had on their way to the Promised Land. There was a list of "slavery mindset" behaviors and I found out that all of them applied to me. During the prayer, I prayed to God for overcoming all of them. On the second day, we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Bible, played exciting games related to our theme,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We also planned personal Scripture reading and prayer schedule for this week. I have decided to pray to God every morning and night. We also learned about sin, especially about lust. Lust is the most powerful temptation in our generation, but as we walk towards our "Promised Land," we must fight for our family as children of God.

올해 겨울 수련회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가졌던 '노예 근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노예 근성'에 해당하는 행동들의 목록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저는 이 모든 노예 근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경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라는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게임들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를 위한 개인 성경 읽기와 기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울러 죄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정욕에 대해 깊이 다루었습니다. 정욕은 우리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

윤지아 학생 (뉴젠 YEM)



In this winter retreat, the one thing I remember the most is about slavery mindset Israelites had on their way to the Promised Land. We learned that we also carry it ourselves through small habits which hinders us from being closely connected to God. Praying is the way to break through and get closer. I made a promise to read the Bible in the morning for at least 5-10 minutes. Also I made a decision to pray to God when I wake up and go to sleep. It will help me make a better and closer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his retreat, I have experienced God's presence.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가졌던 노예 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 노예 근성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남아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그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최소 5-10분씩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잠에서 깨어날 때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과 더 좋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Seine Kim 김세인C 학생 (뉴젠 YEM)



I was amazed by how a person can start seeing slavery as something “better,” not because it’s good, but because it feels familiar and predictable. Normally, people view slavery as something obviously wrong—something no one would ever want. But as I listened to the sermon, I realized how fear can make people crave what’s predictable, even if what’s predictable is bondage. And that’s what shocked me—the idea that comfort can quietly replace calling.

I really want to improve my relationship with Jesus. But worldly things distract me from being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m. Church is my safe place. But outside of it, it’s like I’m a different person. I watch YouTube videos about the Bible a lot, but I know that doesn’t automatically make me a follower of Christ.

So I made a promise. I will try to thank God even at my lowest. I will think of Him constantly as I walk through the streets so I don’t forget that He is the reason I’m here. I will finish the Bible this year and give glory to God.

한 사람이 노예 상태를 “더 나은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노예를 분명히 잘못된 것,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며,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그것이 속박일지라도 예측 가능한 것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안락함이 어느새 소명을 대신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관계를 정말로 더 깊이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는 제게 안전한 공간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성경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약속을 세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성경을 끝까지 읽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2026.
02

17조 이승연

구은혜

9조_이미경

25조 홍용환

13조 유경화

22조 이해민

16조 이지영

23조 김효윤

9조 오기은

1조 김주동

성경속으로 간증

19조 박진경

13조 박은희A

8조 조순분

18조 이현빈

1조장 방재 **03**

1. 고수정B 성도 (E서초공동체)

2. 방재철 성도 (W서초공동체)

3. 김효윤 청년 (청년2부)

4. 문은진 성도 (우면공동체)

5. 오혜진C 성도 (C강남공동체)

6. 김건우D 성도 (C강남공동체)

3조 김성수

20조 문은진

15조 박효연

10조 박우란

5조 류태영

2조 최종민

3조 장규형

7조 오순균

8조백부영

9조 박점조

19조 하은숙

이름 8조 김선자

15조 조상윤

2조 한승석

1조 김중구

Samsung SM-A346N

박스란

9조 신향미

20조 방연주

22조 최소정

12조

7조

20조

16조

17조

4조

7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을 느꼈던 시간

고수정B 성도 (E서초공동체)



저는 2022년에 이미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이과적 지식에 매몰되어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고, '성경속으로'를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

이면 믿어지지 않을까?' 하는 알팍한 마음으로 신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성없이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치우다시피 하며 수료에만 급급했고, 결국 성경 1독도 하지 못한 채 아쉬움만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천금 같은 과정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한 저는 성경 1독을 다짐하게 되었고, 아깝게 흘려보냈던 <성경속으로> 모집 공지를 간절히 기다리다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나눔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적 공격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준비했고, 선하신 주님께서는 웃음과 감동을 가득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찬양과 기도로 준

비한 뒤 말씀을 듣고 조원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은 제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한 날에는 멘토스를 먹으며 버티기도 했지만, 그 시간은 말씀의 달콤함이 더해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0주 동안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예배와도 같았습니다. 매 순간 제 방이 예배당이 된 듯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속으로 과정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 특히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속으로> 교재를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저자를 미리 살펴본 후 말씀을 읽다 보니 묵상의 깊이가 달라졌고, 주님과의 친밀함도 더욱 깊어짐을 느낍니다.

이 소중한 과정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랜 신앙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의 말씀

방재철 성도 (W서초공동체)



저는 여덟 살에 교회의 첫발을 들인 이후 오늘까지 53년을 믿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무수한 믿음의 굴곡 속에서

허겁지겁 걸어오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과 세상에 대한 성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동안 여러 차례 성경통독을 했지만, 읽는 행위에 머물러 있었을 뿐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못했습니다. 전자기기의 매뉴얼은 꼼꼼히 살펴면서도, 50년 넘게 곁에 두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삶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교회에 등록하며 가장 먼저 마음이 향한 것은 교회의 교육과정이었고, 특히 '성경속으로' 수강은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장 섬김의 자리까지 맡게 되었지만, 10주는 매우 밀도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매 시간 목사님들의 강의는 깊은 이해와 감동을 주었고, 특히 친구약 중간기를 다룬 강의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를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질 때, 400년의 침묵과 기다림 앞에서 마음 깊은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알겠니? 나 하나님이야"

오랜 시간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속삭임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속으로' 수강은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태도로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삶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또한 '맞난 성경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작은 몫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교회의 수많은 퍼즐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16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여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다닌 횟수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외형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경속으로' 수강은 제 신앙 여정에 큰 은혜였습니다. 비록 작은 퍼즐 조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조각 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저와 제 가족이 새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해준 성경속으로

김효윤 청년 (청년2부)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지만 은혜로 CES를 수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만, 뚜렷한 계획 없이 시작하다 보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속으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님과 저를 전도해 주신 분 모두가 추천해 주신 과정이었기에, 성경의 큰 흐름을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모든 강의들은 주교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해 진행되었습니다. 성경도 교회도 처음인 제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의 홍수 특강을 듣고 소감을 쓰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하나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속으로가 열려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 때때 자매들과 한 조가 되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 순의 순원들과 순장님

이 함께 배정되어 용기를 내어 나눌 수 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속으로의 나눔 시간은 또 하나의 순처럼 기다려지는 공동체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특강을 통해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이 믿음으로 자라났고, 부모님을 CES 수료식에 초대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기도한 후, 몇 주가 지나 부모님께서 실제로 수료식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또한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에 스쳐 뵈던 목사님들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영상과 줌을 준비해 주신 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랑의 수고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대상이 바로 우리이며 이 세상 전체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고, 눈물로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속으로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성경 전체를 훑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이 과정이 성경의 큰 맥을 짚고 핵심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교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 설렸고,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한 순종과 기다림

문은진 성도 (우면공동체)



2022년 교회에 등록한 후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며, 순장님과 순 자매님들로부터 CES와 「성경속으로」는 꼭 들어야 할 교회의 대표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CES 멘토 과정을 통해 저의 믿음을 점검하고, 멘토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나눔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성경속으로」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과정이 늘 마감되어 수강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꼭 듣겠다는 마음으로 주일 광고를 듣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신청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신앙과 영적 성장이 더딘 것은 아닐지 고민해 왔고, 이 양육을 통해 그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길어진 출퇴근과 직장, 살림, 아이 양육으로 인해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수료만 하자'는 느슨한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프로그램 시작 전,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속으로」 조장으로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안고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주 과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매주 조원들에게 강의 안내를 하며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성경속으로」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말씀 나눔과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다

리심과 인내, 배부심과 책망, 그리고 기적 속에 담긴 무한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타협도 없는 순결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인내와 기다림은 겸손에서 시작되며, 온전한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붙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지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조 자매님들과의 나눔은 말씀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했고, 10주간의 시간이 지루함이 아닌 기대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목사님들과 이끌어 주신 담당 목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신 팀장님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듣는 동안 새해에는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실제로 1월 1일부터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속으로」를 듣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단도,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또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속으로」를 수강하지 못한 분들께 이 과정을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성경이라는 지도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오혜진C 성도 (C강남공동체)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제 삶의 중심이 ‘나’와 ‘가족’의 필요에만 쏠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성경은 여전히

어렵고 파편화된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권유로 ‘성경속으로 온라인 과정’을 함께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성경속으로’는 두 번째 수강이었습니다. 새로운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언니의 권유로 신청했지만, 여러 핑계로 빠지게 되어 결국 수료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끝까지 해보자는 다짐으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강이라는 이유로 조장을 맡아달라는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큰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제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 이렇게 부족한 제가 조장을 맡을 자격이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장을 맡지 못하겠다는 문자를 써 두고 망설이던 중,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부족함을 아시고

훌륭한 조원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10주간의 나눔 시간 동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들의 나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매주 ‘성경속으로’ 강의를 들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가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지리적 배경과 연대표를 통해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금요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성경을 공부했던 지난 10주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제게 ‘영적인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10주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지만, 함께 새로운 지도를 그려간다는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이라는 든든한 지도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자료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조장을 따뜻하게 도와주신 18조 조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속으로’ 과정은 마무리되었지만, 제 인생의 성경 여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며,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김건우D 성도 (C강남공동체)



저는 벌써 40대 중반이 되었고, 3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두 아이와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

때로 영적인 갈급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갈급함마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을 쏟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번엔 ‘성경속으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 통독은 제게 늘 넘지 못한 높은 산과 같았습니다. 매번 굳은 결심으로 시작했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든 넘기다가도 그다음에 이어지는 방대한 분량과 생소한 지리적·문화적 배경 앞에서 길을 잃고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속으로’ 지난 10주 강의는 성경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파편화되어 있던 성경 지식들이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적 흐름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단편적인 에피소드로만 이해했지만, 이제는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이어지는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의 숲’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

었습니다. 특히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연대기와 지명들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고전이 아니라 제 삶을 관통하는 살아 있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저를 가장 깊이 울렸던 부분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중요하지만, 두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나니,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낼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막연했던 말씀의 즐거가 잡히면서, 이제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담하게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강의가 끝나더라도 바쁜 일정 속에서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려 합니다. 이번에 배운 성경의 지도를 따라 멈췄던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며,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삶으로 그 가르침을 증명해 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적인 강의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
